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FEARLESS FIVE

가제 : 겁 없는 친구들

저자 : Anna McPartlin

출판사: Piccadilly Press

발행일: 2019년 5월 16일

분량 : 272 페이지

연령 : 10세 이상



* 독일 판권 계약

* 사랑하는 친구가 고아가 되지 않도록 아이디어와 용기를 끌어모아 뚝뚝 뭉친 다섯 친구들의 무모하지만 감동적인 도전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신나는 여름 방학이 시작된 1990년 6월, 제레미는 방학만 되면 매일 어떻게 놀 것인지 생각했던 일들을 떠올린다. 자전거도 타고, 숲에 가서 굵은 로프로 만든 그네도 타고, 그러다 지루하면 나무에 기어 올라가기도 하면서 하루 놀 생각만 해도 얼굴이 싱글벙글해지는 이유는 이 모든 놀이를 함께 할 소중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동갑이지만 키도 훨씬 크고 덩치는 문 한 짝만큼 커서 길에 나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한쪽 옆으로 비켜서는 최고로 덩치 큰 친구 스모(진짜 이름은 브라이언),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집에 컴퓨터가 있고 ‘올해의 어린 과학자 상’을 받은 똑똑한 아이 워커, 그리고 학교의 모든 아이들은 물론 온 동네 어른들도 다들 좋아하고 칭찬하는 멋진 친구, 제레미의 눈에는 아일랜드 전체에서 가장 용감하고 잘생긴 아이 조니까지 네 사람은 한 형제처럼 몇 년째 붙어 다니며 신나는 일을 찾아 다녔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많은 것이 변한다고들 하지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제 방학이고, 얼굴만 봐도 행복한 친구들이 있는데! 하지만 제레미의 이 부분 기대는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몇 년 전부터 암 투병 중이던 조니의 엄마가 병세가 악화되어 어쩌면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빠는 조니가 두 살 때 돌아가시고, 삼촌과 함께 엄마를 간병하며 씩씩하게 살아온 조니도 더 이상 희망적인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툰시 아줌마는 이제 어떠한 치료도 효과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대로 조니가 고아가 되도록 두어야 하다니, 평소에도 잔걱정이 많고 예민한 제레미는 방장을 설치며 조니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고민한다. 넷 중에 가장 똑똑한 워커가 몇 번이고 말한 이야기도 잊혀지지 않았다. 툰시 아줌마는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제레미와 친구들은 다소 거들먹거리긴 해도 똑똑하기로 소문난 워커의 말이라면 대부분 그대로 믿었다. 워커는 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못 고치는 병도 고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

고 있으며, 워낙 의학적인 지식이나 장비도 많아서 어떤 병이든 낫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무조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아무 병원이든 찾아가면 똑똑 고쳐줄 거야!”라는 워커의 말에 구체적인 비용을 알아본 제레미는 기겁했다. 아일랜드에서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표만 1,000 파운드였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이 든다고 한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엄마를 지킬 수 있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 이런 결론에 도달한 제레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한적한 곳에서 복싱 시합을 열고, 또래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선수를 찾아낸 다음 관람객들에게 구경하는 대신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방학이 시작된 직후, 네 친구들이 사는 마을 근처 숲에 무려 12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제레미는 학교에서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피쳐와 조니가 맞붙는다는 소식에 구름 떴처럼 몰려든 구경꾼들에게 1 파운드씩 거둬 순식간에 약 120 파운드나 되는 돈을 벌었다. 이런 식이면 금세 비행기표 값은 모으겠다고 흐뭇하게 웃던 것도 잠시, 글러브를 끼고 마주선 피쳐와 조니의 경기는 단 몇 초 만에 끝나고 말았다. 피쳐가 휘두른 주먹 한 방에 조니가 나가떨어져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피쳐가 완승을 거둔 것이다. 1파운드나 내고 구경하던 아이들이 돈을 돌려주거나 더 재미있는 걸 보여달라며 고통을 지르기 시작했다. 재미 삼아, 친구 좀 돕겠다고 시작한 경기는 갈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

싸움을 잘 하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않는 아이들이 틈시 아줌마가 미국에 갈 비용을 벌겠다고 시작한 복싱 시합은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결국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덩치 큰 스포츠 모드 제레미에게 떠밀려 링에 올랐지만 대참패였다. 그 때 네 소년들 앞으로 다가온 강마르고 창백한 소녀, 찰리가 자신이 한 번 나서보겠다고 호연장담을 하면서 제레미를 놀라게 한다. 살짝 치기만 해도 획 쓰러질 것처럼 보이던 찰리는 새빨간 곱슬머리를 휘두르며 엄청난 실력을 보여준다. 네 명이던 제레미의 그룹이 다섯 명으로 늘어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찰리까지 동참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던 제레미와 친구들은 강도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떠올린다. 겁도 없고 무조건 저지르고 보는 무모한 아이들의 대범한 계획은 대체 어떻게 됐길래, 얼마 후 아일랜드 전체에 뿌려진 ‘지명수배자’ 전단에 다섯 명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실렸을까? 마침내 목표로 정한 금액을 다 모았는데 그래 봐야 틈시 아줌마는 회복될 수 없다고 알려준 사람이 나타나고, 혼란에 빠진 제레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심지어 그 말을 해준 친절한 아저씨도 가족이 암 투병 중인데다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고 다섯 친구들처럼 치료할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할 만한 사람이라면 워커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아저씨의 충고를 믿어야 하지 않을까? 휴대전화나 인터넷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1990년을 배경으로 친구를 도우려는 아이들이 일으킨 대책 없는 소동은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선사한다.

<저자 소개>

애나 맥파틀린(Anna McPartlin)은 아일랜드 소설가로,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가 마케팅을 공부하고 소설가가 되었다. 『Pack Up the Moon』, 『Apart from the Crowd』, 『No Way to Say Goodbye』, 『The Space Between Us』, 『The Last Days of Rabbit Hayes』 등을 발표했다.

제목 : MAYA AND THE RISING DARK
가제 : 마야와 어둠의 세계
저자 : Rena Barron
출판사: Houghton Mifflin Harcourt
발행일: 2020년
분량 : 약 230 페이지
장르 : 판타지



*** 3권 시리즈 pre-empt, 미국, HMH에 6-figure로 판권 계약**

*** 사라진 아버지의 수상한 직업, 암흑 세상과 연결되는 문을 지켜야 하는 열두 살 소녀와 친구들의 오싹하고 위험한 모험**

별로 안 친한 친구들은 마야를 ‘선생님 애완견’이라고 놀리지만, 마야가 방과후 특별수업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런 별명 때문이 아니었다. 수학 선생님은 자꾸 타고난 영재라는 둥, 자꾸 연습해야 실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둥 정규 수업이 다 끝나도 공부를 더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만 마야는 영재가 되고 싶지도 않고, 수학이 재미 있지도 않았다. 이제 딱 일주일만 참으면 여름 방학이고 방학이 되면 맨날 출장 다니느라 얼굴 보기도 힘든 아빠가 약속한 여행을 갈 테니까, 마야는 이 생각 하나만으로 다시 힘을 내본다. 하지만 선생님이 내준 수학문제가 적힌 칠판을 응시하다 어지러워진 마야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뜬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창 밖에 보이는 나무며 학교 건물, 운동장에 오가는 사람들과 저 멀리 거리와 하늘까지, 마치 마르지 않은 페인트에 비가 내려 줄줄 흘러내리듯 색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초록색 나뭇잎들, 파란 하늘, 형형색색의 사람들 옷차림에서 일제히 색이 흘러내리고 남은 건 거무스름하고 희미한 회색뿐이었다. 놀란 마야가 교실 뒤편 책상에 앉아 있던 수학선생님을 돌아보자 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선생님!”하고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선생님은 동상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버린 모습이였다. 당황한 마야가 놀라 소리를 힘도 잃은 사이,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다. 언젠가부터 빈혈 증상이 수시로 찾아와 어지러움을 느낀 건 여러 번이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무섭고 이상했지만, 마야는 잠깐 너무 어지러워서 그런 걸로 넘기고 엄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아빠가 들려준 온갖 엉뚱하고 기이한 이야기도 헛소리라고 놀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 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 엘리와 프랭키에게만 살짝 말하고 넘어간 건 아주 큰 실수였지만, 그 때 마야는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

학교에서는 말썽이란 말썽은 다 부리고 거의 매일 벌을 받는 장난꾸러기지만 유령의 존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굳게 믿는 괴짜이기도 한 프랭키와 든든한 친구 엘리에게만 마야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아빠의 이야기가 그 날 문득 찾아온 이상한 징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지 못했다. 사실 마야는 아빠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 열두 살이나 됐고 공부도 잘하는 마야가 이해를 못할 까봐 말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직업을 물을 때마다

‘일급 기밀’이라는 말과 함께 ‘도시 기반시설을 챙기는 일’ 쪽으로 알아두면 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돌아왔다. 확실한 건 아빠가 도맡아서 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출장에서 돌아온 아빠는 늘 이번에는 무엇을 하고 왔는지 마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국제 우주정거장에 가서 그곳을 무단으로 침범한 화성인들과 싸우느라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하늘 저 높이 어딘가에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도시가 있는데 아빠가 스파이로 그 도시에 몰래 들어가서 봤더니 저녁 식사로 아이스크림을 먹더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한 번은 이상한 숲에서 그곳을 지키는 엘로코스라는 난쟁이들과 맞닥뜨려 붙잡힐 뻔 했다면서, 마야에게도 불러 주던 자장가를 열심히 불러서 다 재워버리고 겨우 도망쳐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려 주었다. 꼬마 시절에는 아빠의 이런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너무 신기하고 재미 있었지만 이제는 다 진짜 직업을 숨기기 위해 아빠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쯤은 마야도 다 알고 있다. 마야에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아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다.

교실 바깥에서 색이 흘러내리는 장면을 목격한 그 날, 마야는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다. 꿈속에서 시커먼 리본처럼 생긴 기다란 형체가 나타나더니, 사람들로 붐비는 시내 한 복판에 사람처럼 우뚝 서서 펄럭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낮에 학교에서 본 것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색이 그 리본 같은 존재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흘러내리고 또 다시 주변은 온통 흑백이 되어버렸다. 움직이던 자동차와 사람들 모두 그 자리에 못박히듯 멈춰선 것도 아까와 똑같았다. 꿈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이 자신 뿐임을 깨달은 마야는 리본 같은 괴물 쪽으로 달려가며 그만두라고 소리쳤다. 마야를 발견한 괴물은 반색하며 더 가까이 와보라고 하더니,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나와 함께 가자. 넌 여기 속한 아이가 아니야. 네 아버지가 영원히 널 숨길 수는 없어.”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마야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대고 땀을 뻘뻘 흘릴 만큼 생생한 그 꿈과 학교에서 겪은 일을 모두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그러지 않았다. 다음 날, 2주간의 장기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기로 한 아빠가 아무 연락도 없이 오지 않은 뒤에야 이 모든 사태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아빠의 행방을 찾던 마야는 믿기 힘든 사실들을 하나 둘 발견하고, 지금까지 아빠가 남다른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동화인 줄 알았던 이야기들이 어찌면 전부 일어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엘리, 프랭키의 도움을 받아 아빠를 찾아 나선 마야는 우리가 사는 세상 뒤에 ‘더 다크’라 불리는 어둠의 세계가 존재하며 아빠는 두 세계를 잇는 통로를 지키는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아낸다. 두 세계의 엄격한 경계를 뚫고 인간 세계 전체를 지배하려는 어둠의 힘에 맞서려던 아빠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자신에게 지금껏 잠자고 있던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 마야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는 성뜩한 더 다크의 존재들에 맞서 이들의 공격을 막고 아빠도 무사히 구해내기 위한 모험을 시작한다. 마술과 미스터리 요소가 잘 결합된 흥미진진한 판타지 소설이다.

<저자 소개>

레나 배런(Rena Barron)은 앨라배마 작은 마을에 살던 어린 시절부터 마법과 모험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했다. 현재 미시건 호 근처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